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티아론:

원인과 실체로서의 아이티아

이영환*

【요약】

아리스토텔레스 aitia개념은 현대어로의 정확한 일대일 번역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인 번역어인 ‘원인(cause)’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설명(Explanation)’(혹은 ‘설명’개념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용한 다른 번역어)도 각자 나름의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번역어인 ‘원인’을 채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 하나의 이유는 설명과는 달리 원인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 말로 자연스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과와 설명에 대한 스트로슨의 구분을 원용해서 실재론적 이해를 옹호하고 aitia와 현대의 원인관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논점은 원인/아이티아가 사물인지, 아니면 현대 인과이론에서 논의하듯 사건인지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현대의 4차원주의(four-dimensionalism)를 논의하고 이것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와 배치되는 지를 또한 다룬다.

【주제어】 아이티아, 원인, 설명, 실체, 사건, 4차원주의

*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5024).

*** 이 논문의 초고에 대한 심사자분들의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지적된 내용을 이 논문 안에서 만족스럽게 반영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필자가 수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I. 들어가며

“번역은 반역”이라고 많은 사람은 말한다. 문명과 문명, 사고체계와 사고체계가 조우할 때 그들을 특징짓는 핵심개념의 상당 부분은 서로 간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번역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과 사뭇 다른 사고체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역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중 상대적으로 더 나은 번역어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근거와 한계를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사고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고체계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번역에 대한 이 일반론은 고대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aitia*개념에 똑같이 적용되며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개념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위의 일반론을 거꾸로 뒷받침하는 아마도 가장 좋은 예 중 하나일 것이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있어 *aitia*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 중 하나이며 또한 현대어로 깔끔한 번역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개념으로 꼽을 만하다. ‘원인(cause)’, ‘설명(explanation)’ 등의 제안은 모두 각각의 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완벽한 번역어가 없다고 번역을 안 하고 남겨두는 것보다는 그 중 최선의 번역어를 선택하고 그 근거와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 나으며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를 어떤 현대어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뿐 아니라 현대인이 가지는 원인개념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은 1)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개념, 특히 운동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과연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2)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원인이 과연 어떤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지를 논의한다. 이 두 문제를 다룸에 있어 원인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일정 부분 들여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원인에 대한 ‘현대적 이해’는 현대 철학의 인과이론에 등장하는 원인개념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반성 이전의, 우리의 일상 언어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도 포함한다. 이 두 문제를 논의하고 난 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현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짚막하게 논의하겠다.

II.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원인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이 우리의 원인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은 이제는 흔한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이 우리의 원인 개념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원인(cause)’이라는 번역어 대신에 설명과 관련된 개념 - explanatory factor 또는 explanatory item - 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¹⁾ 확실히 아리스토텔레스가 aitia의 예로 들고 있는 것 중 어떤 것 - 식사 후 산보에 대해서 건강이 aitia이고, 상(像)에 대해서 청동이 aitia라는 것 등등 - 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서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원인의 개념에 따르면 원인은 결과를 산출, 야기(惹起)하거나, 일으키거나, 불러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

1) 이제는 이러한 견해가 표준적인 견해가 된 것으로 보인다. Moravcsik (1974); Hocutt (1974); Annas (1982). 모랍식은 1991년과 9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신의 견해를 경신하고 있다. Fine(1984)는 이에 반대하는 듯 보이는 주장을 하지만 나는 이 주장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그녀는 우리가 ‘원인(cause)’이라는 단어를 유지하되 이 단어를 더 넓은 의미 즉, “변화를 설명할 때 언급되는 존재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녀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부른다. ‘원인’이라는 단어를 설명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한다면 ‘원인’이라는 단어를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아이티아-설명 견해에 대한 좀 더 전통적인, 즉 ‘원인’개념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응답으로는 Mure(1975)를 볼 것. 국내의 연구로는 유원기(2005)가 작금의 경향에 반대하여 전통적인 견해를 옹호한다. 필자도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이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는 원인”은 현대철학에서의 원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 언어적 직관에 기반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이 산책을 일으키고 청동이 동상을 산출하거나 발생시키겠는가? 만약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이 우리의 원인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면 *aitia*를 ‘원인(cause)’으로 번역/이해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 이론을 그로부터 구성하려는 시도는 애초부터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원인’보다는 여러 면에서 훨씬 유연한 ‘설명’개념을 원용해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지만 만약 문제를 ‘원인’과 ‘설명’ 사이의 선택으로만 한정한다면 설명보다는 원인을 선호해야한다는 것은 이미 앞선 국내의 연구에서 (최소한 필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다. 유원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티온(*aition*)”이라는 논문에서 원인과 설명에 대한 스트로슨의 구분을 원용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가 설명이 아니라 원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스트로슨이 제시하는 원인과 설명의 구분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자연세계에서 성립하는 관계, 즉 자연에서 특정 시공간을 차지하는 것들 사이의 관계이고 설명은 그렇지 않다. 스트로슨은 사건(events)은 자연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facts)이나 참(truths)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³⁾ 그런데 왜 사실은 사건처럼 자연세계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스트로슨은 “그 협상의 결렬은 하필 바로 그 때 일어난 그의 죽음 때문이다 (His death, coming when it did, wa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negotiations)”와 “그 협상의 결렬은 그의 죽음이 하필 바로 그 때 일어났기

2) 유원기 (2005). 물론 유원기가 ‘원인’으로의 이해가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3) 여기서 물론 스트로슨은 인과관계를 두 사건 간의 관계로 보는 표준적인 현대인 파이론을 전제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전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에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aitia*에 대한 논의에 스트로슨의 논의가 의의를 가지는 이유는 그가 원인과 설명 개념을 대비하면서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원인 개념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때문이다(His death's coming when it did wa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negotiations)”라는 문장을 비교해볼 것을 제안한다.⁴⁾ 첫 번째 문장에서 협상의 결렬을 일으킨 것은 그의 죽음인데 여기서 그의 죽음은 자연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an event in nature)이다. 자연세계 안의 사건으로서 그의 죽음은 특정한 시공간을 차지한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그의 죽음이 하필 바로 그 때 일어났다는 것은 자연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fact)이다. 이 사실은 어떤 사건이 어떤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어떤 특정 시간적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 인과관계를 두 사건간의 관계로 보고 스트로슨이 제시하는 사건/사실 간의 차이를 받아들이면 원인은 자연세계 안에 있는 무엇이고 설명은 그렇지 않다는 스트로슨의 주장은 수월하게 이해된다.⁵⁾

이미 언급했듯이 필자는 스트로슨을 원용하는 유원기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원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을 이해하는 기본 개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란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실재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기반해있다.

4) Strawson (1985), p. 116. 물론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스트로슨 자신이 지적하듯이 미묘(subtle)하다. 영어 문장 수준에서 둘 사이의 차이는 오직 쉼표 두 개와 소유격을 나타내는 's'의 유무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건과 달리 사실은 자연 세계 안의 존재자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스트로슨이 예들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는 스트로슨의 주장을 이해하기에 유용하다.

5) 여기서 스트로슨은 인과관계는 사건과 사건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로, 그에 비해 설명은 사실 간에 성립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설명도 사건들 간의 관계에 근거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보는, 김재권의 설명적 실재론(explanatory realism)과 대비된다. Kim (1988). 우리가 만약 설명적 실재론을 받아들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이해가 실재론에 기반하고 있기에 aitia에 대한 적당한 번역은 설명보다는 원인이라는 필자의 논지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설명을 실재론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비실재론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는 없겠다. 다만 현대형이상학적 논의와는 별개로 일상 언어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보다는 '원인-결과'가 최소한 상대적으로 더 실재론적 이해에 더 어울린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가 *aitia*의 번역어로 ‘설명’이 아니라 ‘원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위에서 지적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어려움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개의 다른 종류의 *aitia* - 형상인, 목적인, 운동인, 질료인 - 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중 운동인만이 그나마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세 종류는 아예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은 현대의 원인 개념(즉, 운동인)을 포함하고 그것에 더해 다른 것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고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다른 세 종류의 *aitia*를 제외시키고 논의를 운동인으로 한정시키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개념과 우리의 원인 개념 사이에는 조금 후에 보듯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여기서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aitia*라는 그리스어가 *aitios*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재차 언급될 가치가 있다. *aitios*는 일상적인 맥락에서 어떤 일의 책임소재를 물을 때 쓰는 말로서 영어로는 *responsible*로 번역될 수 있고 그로부터 파생된 단어인 *aitia*도 ‘탓’ ‘책임’과 연관 지어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원인(*aitia*)이란 ‘탓되는 것’이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만약 네 종류의 *aitia* 사이에 어떤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듯 운동인과 나머지 셋 사이의 구분이 아니라 질료인과 나머지 셋 사이의 구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인, 운동인, 목적인이 종종 하나로 수렴되지만 (*eis hen*) 질료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⁶⁾ 만약 누군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 개념만큼은 우리의 원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단지 나머지 세 종류의 *aitia*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6) 대표적으로 『자연학』 2권, 7장, 198a25이하를 볼 것. 하지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인을 형상과 목적과 무리 짓는 대신에 질료 쪽에다가 놓는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다. 『동물의 생성에 관하여』 5권 1장, 778a32-b1.

의 *aitia* 개념에는 무언가 우리의 현대적인 원인 개념으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요소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 개념도 우리의 원인개념으로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2권 3장에서 운동인을 다루면서 누군가가 집을 지은 경우의 예를 들고 이 경우에 가장 정확하고(*akrotaton*) 일차적인(*proteron*) 운동인은 사람도 건축가도 아니고 건축술이라고 말한다.⁷⁾ 전에는 없던 집이 누군가가 집을 지어 생겨난 경우 우리는 보통 집이 생기게 된 원인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거나 그의 행동에 돌릴 것이다.⁸⁾ 굳이 건축술이 이 맥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해야만 한다면 건축술은 집을 짓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 내지는 지식으로 단지 그가 집을 지을 때 사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건축술이 집을 산출한/불러온/일으킨 것일 수가 있는지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이, 심지어는 현대의 원인 개념에 가장 가깝다는 운동인의 경우에도, 우리의 원인개념에 대응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 특히, 운동인 - 가 우리가 원인의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무언가를 일으키는 “능동적인 힘”의 요소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⁹⁾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은 - 특히 최소한 운동인의 경우에는 - 분명히 물리세계에서의 변화를 산출하거나 불러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형상이론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볼 수 있다.¹⁰⁾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형상이 존재하는

7) 195b22ff. 195a6-8에서는 조각술(*andriantopoiikê*)을 운동인(*hothen hê kinêsis*)의 예로 든다.

8)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러한 지적이 현대철학의 원인 개념에 기반 한 것인지 일상 언어의 원인 개념에 기반 한 것인지 물을 수 있다.

9) 이에 대한 세심한 논의는 Frede(1987)를 보라.

10) 『형이상학』 1(A)권 9장, 991b3-9; 『생성소멸론』 335a31-2; b7-24; 『동물의 생성에 대하여』 1권 1장, 715a13-15.

모든 것의 원인으로 추앙되면서도 사실 이 세상의 우연적인 변화를 산출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하기를, 우리가 플라톤의 형상을 받아들여더라도 이 세계의 우연적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도입해야만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변화를 산출하는 힘 또는 인과적인 능력의 아이디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구성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 특히, 능동인 - 개념이 우리의 원인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그래서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 비록 어떻게 건축술과 같은 것이 인과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지가 당장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라는 원인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와 공유한다고 가정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건축술과 같은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이 우리의 원인 개념과 상당히 다르고 심지어는 능동인의 개념에조차도 우리의 원인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요소가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 개념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운동인을 원인이라는 표제 하에서 다루는 것은 정당하다.¹¹⁾

11)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을 원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다른 원인들, 즉 목적인, 형상인, 질료인은 원인 말고 다른 표제어로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은 물론 정당한 의문이고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필자가 채택하는 전략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운동인, 형상인, 질료인이 사실은 하나로 수렴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급을 기본으로 삼아 최소한 4원인을 서로 상이한 다른 표제어로 이해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원인을 반복되는 연속(constant conjunction)으로 이해하는 흠직한 원인이해에서 벗어난다면 심지어 목적인이나 질료인에 대해서도 원인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Ⅲ.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은 사물인가 아니면 사건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원인이 어떤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특히 운동인)이 사물인가 사건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그리고 고대 철학자들 일반에게 있어) 원인은 사건이 아니라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다른 사물들에 행사할 수 있는 사물 또는 실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현대 인과이론/형이상학에서는 원인을 기본적으로 사건으로 간주하지만 철학 밖에서의 우리의 상식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동일한 직관을 나타낸다. 우리의 일상적인 원인의 이해에 따르면 원인은 어떤 능동적인 힘을 가진다. 원인이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어떤 일/것을 산출하거나/일으키거나/발생시키거나/불러 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과 관련된 동사들은 보통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를 주어로 삼는다. 물론 그 때의 행위자가 인간이라든가 심지어는 꼭 생명체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은 A가 B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 그 힘을 행사한다는 것은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개념은 이러한 상식적인 인과개념처럼 행위자로서의 사물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생각에 기반해 있다.¹²⁾ 어떤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사건의 개념이 없었는데 게다가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런 개념이 당시에

12)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의 ‘사물’을 그저 3차원적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종류의 공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물, 즉 실체는 사물의 본성(physis) 그리고 본성과 비슷한 어떤 것 (quasi-physis)으로서의 기술(techne)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자연학』 2권 3장의, 집의 정확한 원인이 건축가가 아니라 건축술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건축술보다는 건축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건축가가 ‘사물’이라는 말에 더 잘 어울리니 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를 사물로 이해하자는 제안에 배치되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를 본성 그리고 기술과 연관지어 이해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과 어떻게 얼마만큼 다른가에 대한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영환(2010), 5절을 보라.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은 어떤 능동적인 힘을 가지기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스토아학파에 와서인데 스토아학파에서도 변화의 추동자로서 사물이 원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잠시 스토아 학파의 원인 개념을 살펴보자. 스토아학파의 인과이론에서 재미있는 점은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원인이 어떤 존재론적 범주에 들어가는 지를 명백히 자각하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의 인과이론에 따르면 인과관계에는 세 개의 구성요소가 있다. 원인 쪽에는 물체(sōma)가, 결과 쪽에는 또 다른 하나의 물체와 그들이 'lekton'이라고 부르는 비물질적인 술어(kategorēma)가 있다.¹³⁾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하나의 물체가 다른 하나의 물체에 대해(3격으로 표현됨) 술어의(2격으로 표현됨) 원인이다. 예를 들어, 칼은 살에 대해 잘라짐의 원인이다. 즉, 칼은 살이 잘라짐의 원인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원인이 되는 것과 결과가 되는 것은 서로 비대칭적이 되고 이제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주-술 구조(살이 잘리다)를 가지는 사건의 개념과 비슷한 것이 등장하게 된다.¹⁴⁾ 이것은 존재론적 범주로서의 사건 개념의 발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렇게 사건개념과 유사한 개념을 고안해낸 스토아 학파조차도 원인이 되는 것은 결과인 것처럼 물체와 술어가 합쳐진 어떤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듯 고대의

13) LS (=Long and Sedley (1987)), 55B. 원인의 의미가 무엇이고 원인이 사물이라는 것은 LS, 55A도 볼 것. 술어가 불완전한 lekta라는 것은 LS, 33F 참조.

14) 왜 스토아학파가 인과이해에 이러한 혁신을 도입했는지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설익어 푸르던) 사과가 햇빛을 받아 빨강게 익었다면 햇빛이 야기한 것은 전에는 없던 새로운 빨간 사과를 생성시킨 것이 아니라 전에는 푸르던 사과를 빨강게 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아이디어, 즉 『자연학』 1권 7장에 등장하는 운동/변화의 분석, 즉 기체와 형상(그리고 그 형상의 결여 steresis)을 원용한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주장이 스토아학파가 직접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꼭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논의는 Frede(1987), p. 137 참조.

인과이론은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든 스토아학파의 것이든 원인을 기본적으로 사물/물체로 보고 있다는 데에 아마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현대의 인과이론에서는 원인과 결과는 모두 사건이라는 존재론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전제된다. 사건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여 이후 인과 및 사건개념에 대한 논의에 틀을 제공한 김재권의 제안에 따르면 사건을 3개의 항 - 즉, 물리적 사물, 물리적 사물이 예화(exemplify)하는 성질, 그리고 그 성질이 문제의 사물에 의해 예화 되는 시간 - 이 이루는 구조 복합체(structured complex)이다.¹⁵⁾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사건에 대한 ‘성질예화 이론(property exemplification view)’라고 불린다.) 즉, 사건이란 어떤 사물 o 가 어떤 시간 t 에 어떤 성질 P 를 가지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해된 사건은 특수자(a particular)라는 것이다. 즉, 사건은 발생(occur)하지 반복해서 발생(recur)하지는 않고 또 같은 시간에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하지도 않는다.

사건을 성질의 예화로 보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철학자 데이빗 루이스(David Lewis)는 이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사건은 만약 발생한다면 하나의 특수한 시공간 영역에서 발생하고 또 정확히 하나의 시공간 영역에서만 발생한다.”¹⁶⁾ 루이스는 이러한 사건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성질 예화 이론을 좀 더 간결하게 만드는 데 그에 따르면 사건이란 단순히 “시공간 영역의 성질(a property of spatiotemporal regions)”에 다름 아니다.¹⁷⁾ 여기서 주목할 것은 루이스의 사건개념에서는 김재권의 사건개념에서와는 다르게 변화(또는 상태)의 주체가 되는 사물이 아무런 특별한 위치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든 특정한 시공간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사건은 어떤 특별한 사물에게 생기는 것이므로, 만약 우리가 그 사물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직접 지칭할 수만 있다면, 사건은 이제 그 사물과의 아무런 관련

15) Kim (1976).

16) Lewis (1986b), p. 243.

17) Lewis (1986b), p. 245.

없이 지시될 수 있다.

여기서 루이스가 김재권의 성질예화이론을 발전시킨 방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김재권의 입장에서는 비록 물체가 사건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는 하고 그 점에서 루이스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사건과 사건에 관련된 사물을 외연적인 면에서만 (즉, 사물의 본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접근한다는 면에서 그 둘의 견해 사이에는 사실상 차이가 없고 루이스의 견해는 김재권의 제안을 단지 더 세련되게 다듬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얼마나 반대되는 것인지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루이스의 견해가 그러한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루이스는 사건의 개념에서 사물이 맡는 중요한 역할을 부인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실체라고 불리던 물리적 사물을 사건으로 환원시킨다. 이것이 소위 ‘4차원 주의(four-dimensionalism)’이다. 그에게 있어 물리적 사물이란 사건의 한 종류일 뿐이다. 4차원 주의에 따르면 사물들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듯이 3차원적인, 시간축 방향으로 펼쳐있지는 않으면서 시간상으로 지속(endure)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사건이 그러하듯 4차원 벌레(four-dimensional worm)이어서 지속 대신에 편속(perdure)한다고 말해지는데 이 말은 “사물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시간적 부분을 가지고 그것의 어떤 부분도 하나 이상의 시간대에 전체적으로 있지는 않다 (have different temporal parts, or stages, at different times and no one part of it is wholly present at more than one time)”는 뜻이다.¹⁸⁾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사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아니고 사물의 내재적인 본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대적인 세계관은 흄의 전통을 따라 사물의 본성(그리고 본성이 가지는 인과적인 힘)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심 개념을 부인하는데 루이스

18) Lewis (1986a), p. 245.

식 사차원주의는 실체와 그 본성/본질을 세계 이해의 중심에 놓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견해에 완전히 대척점에 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의 사건이론이 현대 철학/형이상학의 논의에서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연구,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인과이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현대의 사건 개념이나 그와 유사한 개념을 사용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이론에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을 사건이나 사태와 같은 명제적 존재자(propositional item)로 이해한다.¹⁹⁾ 예를 들어, 줄리아 안나스(Julia Anna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을 사건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은 모든 걸 고려해볼 때 사건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녀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뤼클리테스가 조각상의 운동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지 폴뤼클리테스와 관련 있는 사건, 즉 그가 조각을 하는 사건이 운동인이라는 말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뿐이다.²⁰⁾ 또한 데이빗 찰스(David Charles)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을 명시적으로 과정(kinêsis; process)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 현대사건 이론에 의존한다.²¹⁾ 그에 반해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할 때 사건 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나스나 찰스의 접근법을 거부한다.²²⁾ 하지만 비판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최대한 우호적인 입장에서 찰스와 안나스가 왜 그런 입장을 채택하는지를 살펴보자.

19) 이 표현은 미카엘 프레데가 처음 만든 것이다. Michael Frede (1987). 사실 그는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나는 이 표현이 자신 안에 주-술 구조를 가진 존재자를 뜻한다고 이해한다. 대표적으로 사건이나 사태가 명제적 존재자이고 사물은 명제적 존재자가 아니다.

20) Annas (1982), p. 321.

21) Charles (1984), pp. 30-47. (특히 pp. 45-47과 주 39를 볼 것)

22) 이 후, 편의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이론을 사건 또는 사태의 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해석을 '사건 해석'이라고 부르고 그에 반하는 (필자가 채택하는) 견해를 '실체 중심적 해석'이라고 부르겠다.

우선, 찰스나 안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이 사건이나 과정으로 가장 잘 이해된다는 주장을 아무런 부가조건 없이 내놓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을 사건으로 보면서도 그 둘은 사물 혹은 실체가 그들이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찰스는 사건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근본적인 존재론적 범주(fundamental ontological category)” - 즉 실체나 속성과 같은 더 기본적인 존재론적 범주를 통해 환원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범주 -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²³⁾ 안나스도 역시 그녀가 이해하는 사건이란 어떤 실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한다.²⁴⁾ 그들은 비록 운동인을 실체/사물이 아닌 명제적 존재자로 상정하더라도 실체/사물을 사건이나 과정의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만듦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실체가 가지는 중심적인 위치를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 있어 사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서 현대의 사건 개념과 비슷한 무언가를 암시할 만한 여러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명제적 구조(주-술구조)를 가지면서도 동시에 명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표현들이다. 예를 들어 고전 그리스어의 부정사는 영어에서의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대상 세계에서 그 언어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사건과 비슷한 것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식사 후 산책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음식이 역류하지 않음(me epipolazein ta sitia)이나 건강함(hugiainein)을 언급할 때²⁵⁾ 아리스토텔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건 또는 사태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명확히 운동인의 예로 꼽는 어떤 것들은 -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쟁의 원인으로서는) 사르디스 약탈²⁶⁾ - 자연스럽게 사건으로 이해될

23) Charles (1984), p. 30.

24) Annas (1982), p. 321.

25) 『분석론 후서』 2권 11장, 94b8-16.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이론에서 최소한 어떤 운동인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을 사건개념을 통해 이해하려는 찰스나 안나스의 시도가 최소한 그것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자연학』 2권, 3장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인[작용하고 있는 또는 현실적인/현실태의(energounta) 원인]과 잠재인[‘능력/가능성에 따른(kata dunamin)’ 원인]의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 중 최소한 현실인은 사건이라고 생각할 만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구분을 제시하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인은 그것이 일으키는 결과와 동시에 존재하지만 잠재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사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hod’ho iatreuôn)과 집 짓고 있는 이 사람(hode ho oikodomôn)을 현실인의 예로 든다.²⁷⁾ 또 몇 줄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사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종류인 원인을 찾고 개별 사물에 대해서는 개별 원인을 찾아야 하듯이, “잠재인으로는 힘을, 실제로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해야 한다”고 말한다.²⁸⁾ 안나스와 찰스 둘 다 이 구절을 인용해서 비록 아리스토텔레스가 보통 사물을 원인으로 꼽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우리가 잠재적인 원인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원인을 고려한다면 작용하고 있는 원인은 정확히는 사물들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즉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사물들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하고 있는 사물들을 그들은 사건 혹은 과정과 동일시한다. 현실태가 잠재태에 우선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고려해볼 때,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 이론에서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지 그 사건과 관련된 사물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하지만 나는 작용하고 있는/현실태의 원인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26) 『자연학』 2권 7장, 198a19; 『분석론 후서』 2권 11장, 94a36-94b8.

27) 195b16-19.

28) 『자연학』 2권 3장, 195b27-28.

진술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작용하고 있는 원인이 의사 노릇하는 의사 또는 의사의 의사 노릇함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은 이때의 원인이 사물이 아닌 사건이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이때의 원인은 의사가 의사 노릇함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의사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사물이다.²⁹⁾ 물론 그가 원인인 것은 그 의학적 지식을 사용함을 통해서이더라도 말이다.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이론을 해석할 때 사건이나 사태의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개념의 사용에 관련된 문제는 단지 그 특정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알려졌었느냐도 아니고 사건의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었던 또는 가지고 있었을 법한 생각을 현대인이 이해하기에 용이한 방식으로 설명하기에 유용한 개념적 도구인지도 아니다. 오히려 사건이라는 현대적 개념 속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아니면 심지어 정반대가 되는 어떤 숨겨진 형이상학적 전제를 갖고 들어오는 문제이다.

찰스와 안나스의 태도는 앞에서 언급한 현대의 두 사건이론, 즉 김재권의 이론과 루이스의 이론에 빗대어질 수 있다. 사건에서 사물이 가지는 위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루이스식의 사건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김재권의 사건개념은 어떤가? 김재권의 사건개념은 최소한 사물에 사건의 세 구성요소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부여하고 있으니 더 나은가? 찰스와 안나스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이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물/실체를 그 사건들의 중심에 놓는다는 면에서 김재권의 견해와 비교될 만하다. 하지만 단순히 사물/실체의 개념이 사건의 개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실체와 본성과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온전히 담아낼

29) 여기서 다시 한 번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물이 우리가 통상 이해하는 사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위 주 12 참조.

수 없다. 사건 해석자들이 실체를 사건의 환원불가능한 구성요소로 삼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인을 사건으로 간주하는 한 그들의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이론을 적절히 대표할 수 없다. 그러한 견해는 힘으로서의 본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사물이 물리적 법칙 하에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대신 놓는다.³⁰⁾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성 개념과 같은 그런 개념을 부정하는 현대 인과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중심 견해 사이에서는 절충안이 있을 수 없다. 실체가 가지는 중심적인 역할은 인정하면서 사건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적용하려는 찰스와 안나스의 절충안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원인은 명제적 구조를 가지는 존재자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원인은 사건, 과정, 사태 등의 명제적 존재자가 아니라 사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IV. 나가면서 - 고대철학의 인과 개념에 대한 연구의 의의

우리는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 개념이 현대철학에서의 원인 개념과 여러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이 차이들 말고도 논의가 필요한 흥미로운 차이는 더 있다. 여기서 자세한 논의를 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를 언급하자면 현대의 우리에게 (일상 언어에서도, 흄에 의해 형성된 철학적 인과론에서도)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30) 물론 찰스와 안나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불공정할 수도 있다. 비록 'event'라는 말을 원용하기는 하지만 사물의 본성과 그 본성이 가지는 인과적 힘에 대한, 루이스식의 (그리고 더 멀리는 흄식의), 부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거꾸로 되 물을 수 있다. 만약 흄과는 달리, 사물의 본성과 그 본성이 가지는 인과적 힘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관점을 충실히 따르려고 한다면 'event'라는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해석하는 데 도입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가?

선행한다는 것(또는 최소한 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인의 개념의 일부분을 구성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그렇지 않다. 자연물의 경우 일차적인 원인이자 원리(arche)인 본성/형상은 꼭 그것이 야기하는 것에 시간적으로 선행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시간적으로 동시적인 것으로 전제되는 것이 더 기본이다. 이러한 개념은 스토아학파의 결속적(sunektikon; sustaining 또는 cohesive로 영역) 원인 개념에서 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원뿔의 경우 원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르게 되는 데 그렇게 구르게 되는 것은 (원통과 구분되는) 원뿔의 모양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원인이 되는 이 원뿔임(원뿔의 모양)은 구르는 전 과정에 동시적으로 함께하며, 선행하는 원인인 외부에서 누군가의 미는 작용보다 오히려 더 일차적이고 완전한 원인이다.³¹⁾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고대철학의 원인 개념이 이렇게 현대의 원인개념과 많이 다르다면 고대의 원인 개념을 우리가 연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대 철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그저 골동품 수집가의 관심과 같은 것인가? 이 문제는 더 자세한 독립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필자의 관점만 서술하겠다.

우선, 소위 “현대의” 원인 개념은 단일하지 않다. 철학에서의 원인 이해³²⁾와 일상 언어의 원인 이해는 상당히 다르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개념이 현대철학의 원인 개념보다 일상 언어의 원인 이해와 더 가깝기도 하다.³³⁾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를 지배하는 인과와 관련한 개념을

31) 다시 한 번 Frede(1987)을 볼 것.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쟁은 Bobzien(1999) 참조.

32) 기본적으로 과학에서의 설명을 염두에 두고 인과문제에 접근한다.

33) 물론 여기서 ‘일상 언어의 원인 이해’라는 말은 느슨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정말로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원인’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일으킨다’/‘야기한다’/‘... 때문에 생겼다’등의 표현을 우리가 원인-결과와 관련한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표현 속에 등장하는 ‘원인’이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어에서나 영어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원인 이해와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에서의 원인이해의 연관성

반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현대과학철학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보다 고대 철학의 인과 개념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대철학의 인과 이해를 포함해 여러 다양한 인과이해를 살펴보고 그 특징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려는 작업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에 대해서는 토마스 쿤의 흥미로운 언급을 소개할 만하다. 쿤은 피아제가 연구한 어린 아이의 인과 이해의 발전을 통해서 비로소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쿤의 선생이었던 코이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철학을 통해서 비로소 어린아이들의 정신에서 작동하는 인과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Kuhn (1977), p. 21.

참고문헌

- 유원기 (2005),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티온(aition)』, 『서양고전학연구』, 24: 305-332.
- 이영환 (2010),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의 필연성과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적 본질주의』, 『서양고전학연구』, 39: 35-58.
- Annas, Julia (1982), "Aristotle on Inefficient Cause," *Philosophical Quarterly*, 32: 311-326.
- Barnes, Jonathan (1984), *The Complete Works of Aristotle: The Revised Oxford Translation* 2 V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bzien, Susanne (1999), "Chrysippus' Theory of Causes," in Katerina Ierodiakonou (ed.), *Topics in Stoic Philosophy*, pp. 196-242, Oxford: Clarendon Press.
- Charles, David (1984), *Aristotle's Philosophy of Action*, Ithaca: Cornell Univ. Press.
- Fine, G. (1984), "Forms as Causes: Plato and Aristotle," in A. Graeser (ed.), *Mathematics and Metaphysics in Aristotle*, pp. 69-112, Bern: P. Haupt.
- Frede, Dorothea (1992), "Accidental Causes in Aristotle," *Synthese*, 92: 39-62.
- Frede, Michael (1987), "Original Notion of Cause," in M. Frede (ed.), *Essays in Ancient Philosophy*, pp. 125-150, Oxford: Clarendon.
- Hocutt, M. (1974), "Aristotle's Four Because," *Philosophy*, 49: 385-399.
- Kim, Jaegwon (1976), "Events as Property Exemplifications," in M. Brand and D. Walton (eds.), *Action Theory*, pp. 159-177, Dordrecht: Reidel.
- _____ (1988), "Explanatory Realism, Causal Realism and Explanatory Exclus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2: 225-240.
- Kuhn, Thomas (1977), *Essential Tension: Selected Studies in Scientific Tradition and Chang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Lewis, David (1986a),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86b), "Events," in D. Lewis (ed.), *Philosophical Papers Vol. 2*, pp. 241-269, Oxford: Oxford Univ. Press.
- Long, A. A., & Sedley, D. N. (1987), *The Hellenistic Philosophers 2 Vol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Moravcsik, J. M. E. (1974), "Aristotle on Adequate Explanations," *Synthese*, 28: 3-17.
- _____ (1991), "What Makes Reality Intelligible? Reflections on Aristotle's

Theory of Aitia,” in L. Judson (ed.), *Aristotle’s Physics: A Collection of Essays*, pp. 31-47, Oxford: Clarendon.

_____ (1995), “Philosophic Background of Aristotle’s *aitia*,” in May Sim (ed.), *The Crossroads of Norm and Nature*, pp. 237-246, Lanham: Rowman & Littlefield.

Mure, G. R. G. (1975), “Cause and Because in Aristotle,” *Philosophy*, 50: 356-357.

Strawson, P. F. (1985), “Causation and Explanation,” in B. Vermazen & M. B. Hintikka (eds.), *Essays on Davidson: Actions and Events*, pp. 115-135, Oxford: Clarendon.

Abstract

Aristotle's aitia is a paradigmatic example of a classical notion of which it is impossible to find a precise modern translation that corresponds to it one to one. Both the traditional translation 'cause' and the more recent alternative 'explanation' (or a term involving 'explanation') have problems. Having said that, I propose in this paper that the traditional translation 'cause' be preferred (as far as we understand the concept with appropriate qualification and modification). One reason is that causation is, unlike explanation, naturally understood to designate something that exists out there in the natural world. I introduce Strawson's distinction between causation and explanation and subsequently discuss some affinities and discrepancies between Aristotle's notion of aitia and the modern notion of cause. In relation to this issue I also focus on the issue of whether Aristotle's aitia is a substance or a propositional item such as events. This issue is particularly pertinent because, in the modern philosophical discussion on causation, causes are typically assumed to be events and many philosophical discussion revolves around how to understand the notion of an event. I discuss four-dimensionalism in this connection and argue that this modern approach is antagonistic to Aristotelian approach to causation.

【Keywords】 Aitia, Cause, Explanation, Substance, Event, Four-dimensionalism

논문 투고일: 2016. 9. 21

심사 완료일: 2016. 10. 14

게재 확정일: 2016. 10. 14